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1년도 제6호



부르키나파소 외기독교교구 영원한 도움이 성모 보좌의 구약

“하느님만이 실존적, 영적으로 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을 없애실 수 있음을 증거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12월 7일 삼종기도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해도 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선물을 절대 잊거나 밀어내지 않도록 주님께 청하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룩한 미덕을 계속 펼칠 수 있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만 원하신다는 것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쇤보른 추기경은 “그래도 희망은 마지막에 죽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희망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림 시기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의 연결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이용하여 기도와 후원을 통해 고통받는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도록 만듭시다.

짓누르는 가난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탄생을 준비할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 지원 사업을 위해 레바논과 시리아에 다녀온 ACN 직원들에게 그곳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첫 대답은 “절망감이 압도적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떠한 희망과 모범, 방향, 목표를 두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값싼 위안거리가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런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대림 시기는 진정한 위로의 원천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탄 대축일 전의 분위기를 고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림절의 쇼핑을, 성탄절의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고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빠르게 사라집니다. 영속적인 위로는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추위에 잠긴 채, 아주 은밀하고 작은 모습으로, 구유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위로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미약한 위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인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믿는 대신에 체제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진보를 확고히 하고, 고통을 마법처럼 물리치고,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위로가 없는, 비인간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되신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의 외로움과 상처 입은 마음속으로 들어오시어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느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일어나 다른 이를 향해 걸어가서 그의 짐을 함께 지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느님께 더 많이 위로받을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사랑의 힘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2코린 1,4 참조).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 수백만 명은 성탄 안에서 평화롭게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할 수 없고, 가족들이 모여 성탄을 축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가정처럼 그들은 또한 오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추방당했고, 박해받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이사 40,1)

우리의 길, 우리의 모범과 목표가 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전 세계를 위한 유일하고도 진정한, 영원한 위로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치 수용소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확실하고도 고요하게 섰는 힘들에 에워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 그대들과 함께 이날을 살아가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가족분들과 함께 복된 성탄 대축일과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빕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희망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과 함께하여 주세요!
다음의 방법을 통해 ACN 대림·성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① 기부를 희망하시는 '선물'을 골라주세요.
- ② 선물을 위한 '기부금'은 아래 후원계좌로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 ③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캠페인 참여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01 시리아와 레바논의 어린이를 위한 성탄 선물

만약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때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무엇을 드렸을까요? 성탄에 관한 많은 민요와 이야기, 시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폭신한 베개, 따뜻한 작은 모자, 함께 놀 수 있는 어린 양, 간식거리 등 끝없는 상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시리아**의 어린 형제자매들 안에서 떨고 계십니다. 겨울은 춥고, 10년간의 전쟁 끝에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빵과 식수, 난방유를 얻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섭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4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병들고 자녀가 셋인 한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난방유 몇 리터와 아이들 옷가지를 사기 위해 내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예수 마리아 수녀회 관구장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는 이런 가정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니 수녀는 수도 다마스

쿠스와 알레포, 흠스, 그 외 다른 지역에 사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 3만 명에게 성탄 대축일에 새 옷을 선물해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얼굴이 미소 짓고 자신들이 이 세상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과 똑같은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옷의 제작은 알레포에 있는 40개의 양장점과 양복점에 맡겨집니다. 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성탄 선물입니다. 위탁 주문 덕분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 **레바논**에도 아기 예수님의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초대형 폭발 사고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레바논의 위기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워버렸습니다.” 1년 전, 사람들은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몇 배로 올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위기 이전에는 교사 월급을 환산하면 약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12만 원의 가치도 안 됩니다.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 나라가 빠져든 터널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예수 마리아 수녀회는 레바논에서도 활동합니다. 레바논의 어린이 1,500명 또한 성탄절에 새 바지와 셔츠를 받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본당에서 작은 파티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1만 5천 원, 시리아와 레바논의 어린이 한 명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청바지와 셔츠 한 벌의 선물을 놓고 두고 아기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 샘플과 재봉 기계



2020년 성탄 선물 전달식



모잠비크의 여성 수도자 생계 및 활동 지원

모잠비크 북동쪽에는 불안이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총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모두 정신없이 뛰어 달아납니다. 2017년 이래로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공격이 950건 이상 발생했으며, 반군과 정부군 간의 무장 갈등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었고, 약 75만 명의 주민들은 실향민으로 내몰렸습니다.

팜바교구에서 활동하는 여성 수도자 73명 중에서도 모든 것을 잃고 트라우마까지 생겨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도자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닻이 되고자 스스로 힘을 냅니다. 두려움과 절망 한가운데서 수녀들은 희망과 신뢰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한 조각의 빵과 담요, 약품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 ACN은 이들의 빈손을 채워 주고자 합니다. 여성 수도자들의 생계 및 사목 활동을 위해 총 570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5만 원, 팜바 교구 여성 수도자 1명의 활동을 한 달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선물을 나누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사목적 활동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교리교사 성탄 선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노동을 '구원 사업 자체에의 참여'라고 칭했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도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 **부르키나파소** 돈신에서 양성 중인 교리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리교사 대부분은 사헬 지역의 척박한 땅이 내어주는 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것입니다.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나라에서 그들은 직접적인 선교 활동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부이자 부모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복음의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교리교사 39명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ACN은 기본적인 물품과 생계 수단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목록 가운데 어떤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선물 목록



기부 희망하시는 선물은 QR코드 참여 양식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 닭장 1개 13만 원
 - ☐ 닭 11마리 15만 원 (암닭 10마리, 수닭 1마리)
 - ☐ 쟁기 1개 6만 5천 원
 - ☐ 수레 1대 26만 원
 - ☐ 당나귀 1마리 13만 원
 - ☐ 자전거 1대 11만 원
 - ☐ 직업훈련비용 17만 원
- 농작물, 쌀감, 식수, 건축 재료 운송용
- 교리교사 활동 시 마을 방문용
- 교리교사 부인의 비누 제작, 직조 및 종교용품 판매 지원 등



성경에서도 인간의 충실한 조수이자 수레를 끄는 나귀



복음을 전하는 자전거



04 인도의 미얀마 난민 긴급 지원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폭력 사태를 피해 난민 수백 명이 이웃나라 인도로 탈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진흙탕 속을 걸어가고 위험한 정글을 힘겹게 통과하고 강을 건너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을 등에 업고 가고, 자녀를 팔에 안고 가다 지친 여성들은 간혹 손을 부여잡고 겨우 데리고 갑니다. 임신부들도 많습니다.

고향에 남아 있으면 분명히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중에는 시민군을 권총으로 사살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27세의 전 경찰관도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경찰관 간부가 자신에게 명령에 복종할 거냐고 다시 물었을 때도 그럴 수 없다고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인도 국경 지대의 관찰 관청이 난민을 대하는 방식은 상이합니다. 난민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는 곳도 많고 반면에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자선을 실천합니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가진 것이 얼마 없으면서도 탈진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 또한 이집트로의 피난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를 통해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주 하느님께서 왜 더 직접

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느님께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요셉은 하느님께 선택되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이끕니다. 요셉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구하십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의 난민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이신 성모 마리아 선교 수녀회 수녀들과 가톨릭 평신도들이 수많은 어머니와 어린이를 구하는 ‘요셉’이 됩니다. 그들은 난민 가정을 위한 구호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와 어르신이 굶주리고 있고, 임신부를 위한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성 수도자와 평신도 봉사자들이 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원을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분명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ACN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750명의 난민에게 기초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3만 5천 원, 인도 북동부의 미얀마 난민 1명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민 가정이 머물고 있는 판잣집을 방문하는 수녀



난민들이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쌀 한 포대와 미소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교구
판사라의 성 바오로 성당



05

파키스탄의 차별받는 그리스도인 가정 돕기

대림 시기에 부르는 93번 성가 ‘임하소서 임마누엘’의 가사는 전통적으로 12월 17일부터 23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전날까지 7일 동안 바치는 ‘오! 안티폰’ 기도문에서 기원했습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임금이시요 입법자시며 만민이 갈망하는 이요 구속자시니,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 천주여.”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파키스탄 판사라마울의 신자들은 본당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간절하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파이살라바드교구는 파키스탄에서 팬데믹으로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판사라의 임마누엘 파르베즈 신부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많은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5일, 미사가 끝난 후에 파르베즈 신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하의 아기 예수상을 들고 성 바오로 성당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당을 위해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염 확산이 더디어진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70세의 신부는 “축복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파키스탄의 전국적인 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수많은 가정을 더 깊은 빈곤 속으로 빠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사회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들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많은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더 이상 학교 수업료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지 구호 기관은 대부분 무슬림만 지원하고, 국가 지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원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ACN은 파이살라바드교구가 있는 편자브주에서 가장 가난한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1,600가구를 도울 것입니다.

판사라 신자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차별 대우를 받고 박해받는 나라에서 많은 수입니다. 왼손에 작은 지구를 들고 오른손으로 강복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아기에 대해 “놀라운 경륜가, 웅대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사 9,5)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판사라의 많은 신자는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총과 기적적인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 천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이 되어 드립니다.

2만 5천 원, 편자브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원하여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시고 어린이들의 미래를 돌보십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ACN 후원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은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유형: 기부코드 41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서 기부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또는 수정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자동등록기간: 2022년 1월 3일까지)



202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https://bit.ly/ACNDonation22>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대교구 행운동성당, 고통받는 인도 교회에 도서 판매 수익금 기부

서울대교구 행운동성당에 서 주임 사제 김영식 루카 신부의 신간 「간주린 가톨릭 교회사」 9월 한 달 분당 판매 수익금인 1,370,000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생명줄'이 되어 주는 인도 가톨릭교회의 활동을 위해 ACN 한국지부에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장 전달식은 지난 10월 10일 교중 미사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100만 어린이의 목주기도' 캠페인 2021년 영상 보고

2021년 10월 18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지난 10월 16일, 서울대교구 개포동성당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어린이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영상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ACN 한국지부, 제8회 이사회 및 신임 이사 위촉식 개최

2021년 10월 27일, ACN 한국지부 제8회 이사회 및 신임 이사 위촉식이 서울대교구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중임 이사인 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 및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와 ACN 한국지부 지부장 겸 지도신부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 박사를 포함하여, 신임 이사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사무총장 겸 피스메이커스 이사장 김영국 오셉 신부, 서울대교구 개포동성당 주임사제 오승원 이나시오 신부, 설현전 요한 법무법인 명장 대표 변호사, 정지원 안드레아 손해보험협회장, 주미희 안나 유성컨트리클럽 사장, 그리고 감사로 이창호 레미지오 (주)효성 재무본부 상무이사를 위촉했습니다. 한국지부 이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신임 이사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축복과 함께 당부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자비!

가을과 겨울이 상견례를 치르는 때가 다가왔다고 집 나간 바람이 제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인지 열한 달 뒤에서 머무르다가 앞으로 나온 마지막 달력 12월에 제 마음은 숨이 찹니다. 물론 한 해를 채웠다는 제 가슴엔 정작 내놓을 게 없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야 열한 달 내내 손 하나는 펼치면서도 뒤에 감추어 두었던 손 하나 내밀며 꼭 쥐고 있던 욕심을 부끄럽게 내려놓습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이치를 어렵듯이 깨닫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속맥인 제게 11월과 12월에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는 주님 말씀이 올해 마지막 반성문에 힘이 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마르 13,32-33)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첫 주일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4-36)

기원후 역사의 첫 난민은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이었습니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공포나 박해, 빈곤 때문에 그들의 고향,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가까운 벗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난민 가정의 전형이며 보호자이십니다. 가난한 난민 부부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처럼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한 난민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돈

도, 권력도, 빈번한 교육 배경도 없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을 거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빵이 되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임마누엘’ 예수님은 난민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듯이 맞아들었다.”(마태 25,35) 바로 ‘환대’의 삶입니다. 둘째,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바로 ‘연대’의 삶입니다. ‘환대와 연대’의 실천은 난민 가정 출신의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이며,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다가가 내밀 감추어 두었던 우리들의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12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연약한 갓난아기로 우리에게 오시는 달입니다. 난민 가정의 원형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이 “빈방이 있습니까?” 물으며 오늘 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때입니다. 우리 곁에 늘 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환대’의 자세로 가장 작은 이들에게 내밀 따뜻한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전쟁과 박해, 가난과 소외로 희망을 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늘진 곳에, 어둠을 밝혀 주는 등불처럼 시린 손 꼭 잡아 주는 따뜻한 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